

트레일링 슬래시(trailing slash) 기초

URL의 끝에 붙이는 슬래시(/)를 트레일링 슬래시(trailing slash)라고 부릅니다. 이것이 무엇일까요?

트레일링 슬래시를 URL 끝에 붙이는 것은 해당 URL 리소스가 디렉토리(directory)임을 의미합니다. 이를 붙이지 않은 것은 해당 URL 리소스가 파일(file)임을 의미하죠.

`https://www.google.com/example/` -> 디렉토리입니다.

`https://www.google.com/example` -> 파일입니다.

1. 트레일링 슬래시가 없는 URL

트레일링 슬래시가 없는 URL을 요청할 때, 서버는 해당 리소스를 우선 파일로 간주합니다.

서버의 처리 동작은 다음과 같습니다:

1. 해당 이름의 파일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.

2. 없을 경우, 해당 이름의 디렉토리를 확인합니다.

3. 디렉토리가 있으면, 그 안의 기본 파일(기본값은 `index.html` 이죠)을 확인합니다.

2. 트레일링 슬래시가 있는 URL

트레일링 슬래시가 있는 URL을 요청할 때, 서버는 해당 리소스를 우선 디렉토리로 간주합니다.

서버의 처리 동작은 다음과 같습니다:

1. 해당 이름의 디렉토리를 확인합니다.

2. 디렉토리가 있으면, 그 안의 기본 파일(기본값은 `index.html` 이죠)을 확인합니다.

따라서 디렉토리 리소스를 요청하는 경우 트레일링 슬래시를 명시해 준다면, 파일 확인을 하는 동작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페이지 응답 속도에 작은 이득이 있습니다.